

## 四象醫學의 批判

學術委員 李 學 範  
(덕인당 한약방)



지 금으로부터 10여년 전만 해도 韓醫學 종사자들 간에 간간히 논제되었고 그 이전에는 四象醫學이란 말조차 생소할 정도로 관심을 끌었던 예가 적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근자에 와서는 四象醫學이 한의학의 전부인양 과대포장하는 예가 일부 한의학자나 건강식품업자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것 같다. 과연 사상 의학이 한의학의 전부 일 수 있을까? 四象醫學은 엄격히 말해 이미 皇帝內經에서 기록된 바가 있는 것을 李濟馬 선생께서 그 학문

의 바탕을 좀 더 연구 확대해서 체계를 세운 것이다. 그 실례로서 李濟馬 선생의 東醫壽世保元에서는 용약법에 있어서 四象體質鑑別에 의해 그들 체질에 해당하는 약만을 써야 하는 것으로 小陰人이라면 그 유명한 補中益氣湯에 升麻, 柴胡를 빼고 藿香, 蘇葉을 써야 하고 小陽人이라면 涼膈散에 大黃, 黃芩, 甘草를 제거하고 太陰人이라면 葛根解肌湯에 柴胡, 白芍藥, 羌活, 石膏, 甘草를 제거하라고 되어 있다 대체로 腎大脾小者인 小陰人들의 약들은 대다수 열약으로서 소화제들이요 脾大腎小者인 小陽人들의 약들은 냉약으로서 이뇨제와 보신약들로서 주종을 이루고 있고, 肝大肺小者인 太陰人들의 약들은 평항액으로서 補肺藥들이 대부분이요, 肺大肝小者인 太陽人들의 약들은 보강하는 약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기한 내용 그대로 李濟馬 선생의 壽世保元의 용약법을 따르자면 小陽人 약인 六味 地黃湯에 山藥을 빼고 써야 할 것이고, 더군다나 八味元의 肉桂, 附子는 감히 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小陰人 처방인 十全大補에 熟地黃과 白茯苓을 빼고 써야 하고 太陰人 처방에 가장 근접한 歸脾湯에는 當歸, 黃芩, 白朮, 木香을 빼고 石菖蒲, 蓮肉, 竹知, 山藥을 가해서 써야 할 것이다. 이렇게 四象體質대로 용약한다면 四物湯은 小陰人의 보혈제로밖에 쓸 수 없고 또 平胃散을 小陰人에게만 한정시킨다면 기타 체질의 소화불량에 대체시킬 약이 없다 또 小陰人 양기부족에 小陽人 약인 枸杞子 肉苁蓉, 土絲子, 복분자 같은 약들을 사지 않고서 과연 올바른 처방이 되느냐가 문제다 물론 張仲景의 小陽人 傷寒藥에 大承氣湯을 쓴다는 것은 문제가 되기는 하나 그렇다고 무조건 四象醫學 體質만을 신봉하고 고집할 수

만은 없을 것이다

대저 용약함에 있어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方藥合篇을 보면 참으로 완벽하게 잘된 처방임을 깨닫고 감탄치 않을 수 없다 어떠한 병증에 한정된 테두리 안에서 그 체질에 해당하는 약만을 나열하기보다 반대체질의 약들을 절묘하게 가미함으로 예를 들어 小陽人 처방엔 八味元에 肉桂, 附子 같은 小陰人 열약이 각 1냥씩 소량 가미됨으로 약의 相畏, 相惡, 相反 작용에 의해 다시말해 黃기의 약성을 높이기 위해 相畏 약인 防風이 가미될 수 있고, 補中益氣湯에 升麻, 柴胡가 氣를 더욱 끌어올리기 위해 가미되었듯이 小陽人의 금기 약인 肉桂, 附子가 들어가서 허로의 보약인 八味地黃湯의 약미를 자극시킴으로 더욱 최대치의 효과를 구사하는 이치다 단 술이나 용광로 불에 소량의 찬물을 끼얹으면 탄불을 더욱 성나게 해서 활활 타오르게 하는 이치와 동일하다.

이런 점에서 물론 體質醫學을 중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너무 四象醫學에만 집착해서 전혀 다른 體質藥은 아예 기피하는 것(예를 들면 補中益氣湯에 升麻, 柴胡를 빼는 등)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더군다나 희안한 것은 요즘 문외인들이 기발한 착상으로 ○링 테스트란 것을 제시해서

太陰人 이라면 青色, 太陰人 이라면 白色, 小陽人 이라면 黑色,

小陽人 이라면 黃色의 氣를 많이 받게 됨으로

太陽人이라면 青色의 옷을 太陰人이라면 白色의 옷을

小陽人이라면 黑色의 옷을 小陰人이라면 黃色의 옷을 입어야 건강 하게 살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太陽人이라면 금반지를 모지에 끼고, 은반지는 무명지에 끼며, 小陽人이라면 금반지를 소지에 끼고 은반지는 중지에다 끼며, 太陰人이라면 금반지를 무명지에, 은반지를 모지에, 小陰人이라면 금반지를 중지에, 은반지를 소지에 낄 것이며, 또한 太陽人이라면 서쪽 방향이 생기 방향이므로 서쪽으로만 계속 보행하거나 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잠을 자거나 작업을 할 것이고, 小陽人이라면 북쪽 방향이 생기 방향이므로 북쪽 방향으로 보행하거나 머리도 그 쪽을 향해서 자고, 작업도 그 쪽을 향해서 할 것이고, 太陰人이라면 동쪽 방향이 생기 방향이므로 동쪽 방향을 향해 보행하고, 머리도 그 쪽을 향해 자며 작업도 그 쪽을 향해서 하고, 小陰人이라면 남쪽 방향이 생기 방향이므로 남쪽 방향을 향해 보행하거나 역시 그 쪽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고 작업 또한 그 쪽을 보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太陰人이라면 백미, 보리, 메밀, 오징어, 갈치, 고등어, 딸기, 토마토, 포도, 모과, 다래, 앵두, 배추, 상추, 썩갓.

## ■ 사 상

小陽人이라면 백미, 좁쌀, 보리, 밀, 돼지고기, 참외, 청어, 콩치, 문어, 낙지, 거위, 파인애플, 당근, 상추, 미나리.

太陰人이라면 백미, 소고기, 밀, 콩, 옥수수, 감자, 배, 수박, 자두, 밤, 호두, 은행, 잣, 무, 당근, 도라지, 호박, 연근,

小陰人이라면 현미, 백미, 찹쌀, 참깨, 고구마, 닭고기, 개고기, 연근, 오리, 노루고기, 미꾸라지, 조기, 상추류를 계속 복용해야 한다고 권장하면서 氣 상승효과를 위한 氣시계, 氣벨트, 氣반지 같은 건강기구를 판매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연구함에 있어서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기발한 착상에 의한 상업적인 타산 쪽으로 지나치게 이용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대개 건강식품업자들이나 건강기구 판매업자들이 학문적 연구를 떠나서 과대선전으로 막대한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더 예를 든다면 음식물만 해도 계속 太陰人 음식만을 먹는다면 결국 가서는 영양의 균형이 깨어지고 말 것이다. 인간은 잡식동물로서 골고루 먹어야 하고 또 어떠한 방향의 기를 계속 받기를 원하고 氣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물리기구들을 착용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그 이유는 나쁜 쪽의 기가 있어야 좋은 쪽의 기도 있을 수 있다. 좋은 쪽, 혹은 나쁜 쪽 어느 한 쪽만으로서 존재할 수도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 활동 불가능한 정적상태만이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주의 기운은 음과 양이 동시에 존재하고 서로가 대립적 상대적이면서도 의존하고 보완함으로써 생성과 존립을 가능케 하고, 一쪽 氣나 一쪽 음식도 흡수함으로써 해서 十쪽 氣나 十쪽 음식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 순리를 거역함으로써 역작용과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다. 그렇다고 체질학을 영 무시하란 말은 아니며 자신에게 유리하게 체질에 맞는 쪽을 선택해서 적당히 잘 활용하는 방법이 바람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항간에 문외인들에 의해 四象學이 만고의 절대적인 것처럼 오도하고 자신들의 상흔만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로 인해 온통 나라 전체가 어수선할 정도로 四象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다. 여기 가도 太陰人이니 小陰人이니 하고 저기 가도 太陰人이니 小陽人이니 한다. 도대체 그 四象體質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인지 그게 무슨 밥이라도 먹여주고 온 세상 천지의 병을 다 고쳐줄 것 같이 떠들고 있으니 한심할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 四象體質을 알아서 어떻게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단지 四象醫學은 韓醫學의 일부로서 韓醫藥人들의 藥과 醫를 연구하고 응용함으로써 처방의 기대치를 높이고 여하히 치료에 공헌하자는데 있을 뿐이다. 물론 韓醫藥人들은 四象醫學 뿐만 아니라 五運六氣學 정도는 터득해야 할 것이나 그렇다고 四象醫學이나 五運六氣學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나 더더욱 五運六氣學이란 그 처방이 한정되고 한 사람의 병증에 언제 어느 때라도 같은 처방만이 나

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부조리다. 결국 四象醫學이나 五運六氣學은 거대한 東洋醫學의 일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기에 우리 韓藥인들이 가장 애용하고 활용의 지침서인 方藥合篇이나 東醫寶鑑이 잘 된 처방집이기는 하나 이쉽게도 體質분류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이 미숙하다 할 수 있으므로 상호 보완만 한다면 괄목할 만한 작품이 완성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體質醫學만을 고집한다면 막대한 학문적 손실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덧붙여서 우리 인체를 太陽人, 小陽人, 太陰人, 小陰人 이렇게 四象으로 분류해서 그 유형별로 어떠한 음식 어떠한 약을 써야 한다고 하나 기하공식적으로 확실한 구분이 어려우니까 八象體質이 나오게 되고, 또 그 八象으로 완벽을 기할 수 없으므로 周易의 64괘와 같이 64象도 나올 수 있는 만큼 인체는 우리가 생각하기 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고 그 개인이 천차만별로 상이함을 알 수 있다. 그 일례로서 가령 자신이 太陰人이라고 한다면 太陰人음식과 약을 먹어야 효과를 볼 것인데 小陰人 음식과 약을 먹어도 효과를 보는 수가 허다할 것이다. 세밀하게 분석해 나가보면 각 개인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므로 어떤 획일적인 구분을 내릴 수 없는 경우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대체로 음식만큼은 그 음식이 영양이 자신에게 잘 맞고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선호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항상 술을 마셔도 괜찮은 체질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체질들도 있다. 음식도 항상 그 음식만을 많이 섭취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 음식을 먹으면 거부감이 와서 도리어 불리하게 되는 경우를 꼭 四象體質의 범주 안에다 획일화 시킬 수는 없으리라 본다. 여하튼 너무 고루할만치 신경질적으로 까다롭게 굴지 말고 골고루 적당히 섭취하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본다.

이상에서와 같이 보편타당성을 초월한 학문은 東洋醫學에 입문한 자로서 참고삼아 연구하고 활용해야 할 과제인데도 유독 비전문인들이 어떠한 영리목적으로 그 학문이 무슨 자신들의 전유물인 듯 떠들어 회자하는게 문제이다. 물론 언제나 그렇듯이 물거품 인기는 세월이 가면서 제 풀에 시들어 들게 마련이지만 그 간만이라도 四象醫學을 내세워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이들은 이젠 좀 그만하고 자숙해야 하리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우리 韓藥人들은 溫古而知新하는 태도와 겸손한 자세로 고인들이 힘써 이룩한 토대에서 大馬之勞의 깊은 연구로 韓醫藥 발전과 國民保健에 이바지 해야 할 것이다.

(대구 달서구 감삼동 T 555-7500)